

SOCIETY

2025년 8월 14일 목요일

“일제강점기 친일 유림단체 ‘효자 표창문’ 남발”

북구, 양산동 행정복지센터 증축
다목적실 등 커뮤니티 공간 마련

광주북구는 13일 양산동 행정복지센터 증축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양산동 행정복지센터 증축은 주민들에게 쾌적한 이용 환경과 만족도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뤄졌다.

행정복지센터에는 면적 299.65㎡의 4층 공간이 새롭게 조성됐다. 이곳은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실과 소회의실 등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마련됐다.

증축 기념식에는 문인 북구청장, 최무송 북구의회 의장, 시·구의원, 자생단체 대표자, 주민 등 총 7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기념사·축사, 호우피해 지원 성금 전달식, 제막식,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에서는 양산동 주민자치회 등 9개 자생단체에서 자발적으로 모금한 호우 피해 지원 성금도 전달돼 의미를 더했다. 성금은 북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계좌로 입금돼 폭우 피해 주민들에게 필요한 물품으로 지원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증축으로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쾌적한 환경에서 민원서비스가 충실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산화 기자 goback@gwangnam.co.kr

심정섭 명예관장, 해남군 용영환씨 표창문 등 2점 공개
쌀 5가마니씩 쟁겨…일제와 7대 3 배분·매년 은사금도

일제강점기 친일 유림들이 총독부의 포상을 받기 위해 효자 표창문을 남발한 사실이 문서로 공개됐다.

특히 민족정신과 충효사상을 앞세워 국권 회복에 앞장서기는커녕 선비정신을 입게 담기 부끄러울 정도로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민족문제연구소 지도위원이자 식민지역사박물관 명예관장인 심정섭씨(82·광주 북구)가 친일 유림단체 대성문학원 자료 2점을 공개했다.

대성문학원은 유교의 경전을 연구하고 유교의 진리를 천명하며 ‘충효열사상’의 선양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와 달리 구성원 대다수는 대동학회(1907년), 공자교회(1909), 유도진흥회(1920), 조선유교회(1932), 조선유도연합회(1939)에 가입해 활동한 친일유림들이다.

실제로 원장 민병한은 대한제국 판서(장관)를 역임하고 1907년에 조직된 친일단체 대동학회와 공자교회 발기인이었다.

부원장 이범석은 승지(비서실장)를 지내고 1910년 3월에 일진회의 합병청원서에 동조해 결성된 국민협성동진회의 간부다.

고문이었던 이재현은 동학과수섬멸 상소를 올린 뒤 판서를 역임했다. 송영대는 참판(차관)을 역임한 뒤 대동학회, 조선유교회 간부로 참여했다. 이명상은 참판을 지내고, 조선유도연합회의 간부를 맡았다.

대성문학원 핵심 요직은 강사(교수)인데 대표적으로 윤영구, 한익교, 송창섭, 정인옥이다.

윤영구는(1869~?)는 참판과 관찰사(도지사)를 역임한 학자이자 조선사편수회 위원으로, 조선사 편찬을 통해 일제의 식민사관을 적극 협조한 인물이다. 친일 인명사전에도 등재됐다.

심 명예관장이 공개한 표창장(가로 22.5cm, 세로 31.5cm)은 1929년 경성부(서울) 방산정 1번지에 위치했던 대성문학원이 전남 해남군 송지면에 거주한 용영환에게 발송한 것이다.

이는 강사 정인옥이 효자 용영환에게 ‘시호’(왕이나 사대부들이 죽은 뒤 그의 공덕을 찬양하는 것)를 지어준 것이다. 해당 문서에는 ‘전남향교회와 유림들의 청을 받아 전라남도 용역단에 전달한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효자 등 상과 시호는 나라에서 정해서 내려주는 게 일반적이지만 대성문학원은 자신들의 이름으로 상을 내리고 시호가

지냈다.

특히 이들은 국가를 대신해 충효사상을 전달한다는 명분으로 일제로부터 매년 한 차례씩 은사금(100원) 등을 받았다.

효자 표창문 1개당 쌀 5가마니를 쟁겼으며, 해당 수익금은 일제와 7대 3 비율로 배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효자 표창문을 남발한 것은 많은 효자를 발굴할 경우 일제가 별도로 포상하는 상장을 받으려는 목적이었다. 이를 통해 금융, 토지 등 각종 이권사업에 개입했다. 각종 세금과 군포, 부역 등에서 면제받고, 일부는 이를 명분으로 신분 상승을 꾀했다.

표창문 수여자 역시 일제로부터 병역, 진학 등 각종 혜택을 받았다.

대성문학원과 쌍벽을 이룬 친일유림단체 ‘모성공회’ 역시 마찬가지였다. 회장 김충한, 찬성장 박기양, 고문 민병석 등 모두 대한제국의 판서 출신이자 일제로부터 남작, 자작을 받은 친일 거물들이었다.

특히 민병석의 아들은 대한민국 대법원장을 지낸 민복기인데 부자가 나란히 친일인명사전에 친일파로 등재됐다.

심정섭 명예관장은 “친일 유림들이 조직한 대성문학원은 충효사상을 천명하면서 친일 행각에 앞장섰다”면서 “효자 표창문을 지어 금품을 갈취하니 지하에서 공자가 통곡했을 것”이라고 꾸짖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민족문제연구소 지도위원이자 식민지역사박물관 명예관장인 심정섭씨가 13일 친일 유림단체 대성문학원 자료 2점을 공개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태극기 형상화 한 쌍암공원 ‘무궁화 명소’ 선정

산림청 공모서 장려상…24시간 휴식 공간 제공

광주 광산구 쌍암근린공원의 시민참여형 무궁화동산이 산림청이 주관한 공모에서 ‘제12회 나라꽃 무궁화 명소’로 선정됐다.

13일 광산구에 따르면 산림청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기관이 조성한 무궁화동산 가로수 등을 대상으로 공모해 총 4곳의 명소를 선정했다.

쌍암근린공원 무궁화동산은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나라꽃인 무궁화의 가치를 알리는 휴식 공간을 가꾸고,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받아 장려상을 받았다.

쌍암근린공원 무궁화동산은 시민의 기부금으로 수목을 마련하고, 시민이 직접 나무를 심고 가꾸는 시민참여형 동산으로 지난 2023년 조성됐다.

0.3ha 규모로, 무궁화와 다른 수목을 조화시켜 태극기를 형상화한 것이 특징이다.

붉은 꽃잎의 무궁화(적단심계)로 태극기의 양을, 푸른 꽃잎의 무궁화(청단심계)로 태극기 음을 표현했고, 기타 수목으로 ‘간곤감리’를 완성했다.

조성 이후에도 시민사회단체가 무궁화동산 관리를 전담하며, 꽃과 나무를 심고,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공원을 가꾸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광산구 주민참여예산으로 ‘무궁화 조형 의자(벤치)’, 기념사진 구역(포토존) 등을 설치했다.

이를 바탕으로 쌍암근린공원 무궁화동산은 시민 누구나 24시간 편하게 머물며 쉴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꽃 심기, 걷기 행사, 거리 공연(버스킹) 등 다양한 시민참여 행사에도 활용되고 있다.



올 4월에는 식목일 기념 나무 심기 행사에 500여명의 주민이 참여해 나무를 심고, ‘테마꽃길’을 조성했다.

박병구 광산구청장은 “쌍암근린공원 무궁화동산은 시민이 주인이라는 민선 8기의 구정 가치를 실현하고, 시민 스스로 실천한 공간”이라며 “향일 독립운동의 역사와 애국정신을 기리는 광주 대표 무궁화 명소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임정호 기자 ljh4415@gwangnam.co.kr

남구 결혼이민자, ‘아동 영어 강사’로 활동

필리핀 등 21명 양성교육…내년부터 어린이집 등 파견

광주 남구가 결혼이민자의 취업 연계와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올 연말까지 영어 강사 파견 양성 교육을 추진한다.

13일 남구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필리핀 등 영어권에서 생활하던 중 결혼으로 대한민국과 인연을 맺은 이들이 국내에서 안정적인 삶을 이어가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구는 앞서 지난 7월부터 결혼이민자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양성 교육 참여·영어 강사 파견에 대한 수요 조사를 진행한 뒤 해당 사업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다.

결혼이민자 영어 강사 파견 교육은 남구가족센터 주관으로 지난 9일 개강식을 시작으로, 오는 12월27일까지

총 18회에 걸쳐 진행된다.

가족센터는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광주대와 GCN글로벌 광주방송, 다문화평화교육연구소와 손잡고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결혼이민자 여성 21명이 역량 강화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올 연말까지 영어 동화책 읽기 어휘를 비롯해 보이스 트레이닝, 발문 연습, 놀이지도 과정 등을 학습할 예정이다.

모든 과정을 수료한 결혼이민자는 내년부터 관내 어린이집 등에 배치돼 아이들에게 영어 동화책 읽기 수업을 비롯해 영어권 문화와 역사 등 다양한 소재를 기반으로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금남로 원각사 원각루 공사

5억 투입…이달 중 마무리

광주 동구 금남로에 위치한 원각사 원각루 증축 사업이 이달 중 완공을 목표로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다.

13일 광주 동구에 따르면 총 5억원(국비 2억2500만원·시비 1억1250만원·구비 1억1250만원·자부담 5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원각사 원각루 증축공사는 지난해 5월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으로 진행됐다.

동구는 지난해 3월 광주시로부터 보조금 교부를 받아 실시설계 용역, 사업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 4월 공사를 진행했다. 동구는 이달 중으로 원각사 원각루 증축공사를 마칠 계획이다.

원각사는 광주시 금남로4가 51에 위치한 대한 불교조계종 송광사의 광주 포교당으로, 현대에 중창된 대웅전, 사회활동장인 원각루, 요사채(승려 거처지) 2동 등이 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부모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사랑과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국가지원 : 100%~80%
본인부담금 : 0%~20%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무료

대상

- 장기요양등급 1~5등급(시설급여) 판정을 받으신 분
- 치매, 노인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계신 분
- 그 외 65세 이상 장기요양이 필요하신 분

아침체조 (매일) **웃음치료 (외부강사)** **간호사 케어**

✓ 넓고 쾌적 최신식으로 신축 고급요양원 ✓ 맞춤형 전문케어 (치매, 파킨슨: 간호사2명, 물리치료사1명, 요양보호사2:1:1)

✓ 촉탁의사(월2회), 외부강사(월18회) ✓ 물리치료 기기 다수 다양, 편리하게 이용

✓ 상차림 및 행사 (생신 및 어버이날, 명절 등) ✓ 넓은 공동공간 구성과 다양한 프로그램

신축 고급 실내 **음악(외부강사 초빙)** **물리치료**

파인트릭 요양원 ☎ 062) 236-3816
광주 동구 남계길 23(내남동)